



통권36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10.10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지난해 9월 23일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어느새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자처한 현 정부아래서도 양심수는 끊임없이 늘어나 감옥이 비좁아져가고 있습니다. 민가협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은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병을 고칩니다 세상을 고칩니다

편 집 부

11월 이면 민중탕제원이 세상의 빛을 본지 3년이다. 이제 세 돌이 지나 걸음도 잘 걷고 어눌하지만 제법 제의견도 말답게 표현할 줄 아는 친구의 세살짜리 아이를 생각하며 탕제원으로 향했다. 이제 곧 세돌을 맞을 탕제원도 그러려니,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계기동 경동약재 시장 꼬트머리에 자리잡고 있는 '민중탕제원'.

탕제원을 찾아가는 길은 여전히 내내 몸에 보가 되는 길이었다. 온거리에서 온온히 풍겨오는 한약재의 냄새에 폭 빠져 탕제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미 보약 몇재쯤은 이미 먹은 것 같은 기분이다. 냄새만으로도 살이 푸둥푸둥 찌는거 같다.

탕제원의 간판은 비록 허름하지만, 민족 수난사를 의연히 겪어 오신 선생님들의 삶처럼 의젓히 취재팀을 반겼다. 의욕에 가득찬 마음으로, 조금은 조심스런 마음으로 처음 간판을 내걸던 3년전 그날처럼.

91년 11월 탕제원의 개원은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또다른 모범을 보여주신 일대 사건(?)이었다.

오랜 감옥생활로 사회적 적응력도 떨어지시는 데다 특히 요즘처럼 생존경쟁이 살벌한 시대에-

고령이신 선생님들께서 탕제원을 시작하신 것은, 감옥밖의 삶을 자주적, 주체적으로 꾸려가시겠다는 각오에서였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애정만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칫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안 된 다 싶더라구.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우리들의 사상을 생활속에서 더욱 빛내려는 생각에서 탕제원을 시작한 것이지."

당시 선생님들의 뜻을 권낙기 선생님께서 들려 주신다.

탕제원의 3년은 권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들의 사상을 관념으로가 아닌 생활과 실천으로 보여 주신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무릎 몇번 깨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어디 있으랴.

단출하게 꾸며진 안방(?)에서 진땀도 났고 침도 놓으시는 이두균 선생님께선 가장 어려웠던 때를 묻는 질문에 "가장 어려웠을 때? 침을 맞으신 분들중에 안받겠다는 돈을 굳이 내려고 하실때였지"라고 말씀하신다.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심각한 대답을 기다리던 기자를 허탈하게(?) 만드시는 순간이다.

탕제원이 생긴 3년전부터 지금까지의 원칙이 있다. 아파서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은 탕제원선생님들께서 공유하고 있는 민중사랑의 독특한 방법이고, 선생님들 바름의 사상표현이다. 수십년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고집과 감옥에서 배운 지식을 민중에게 베푸는 것은 일각에서라도 민중의 건강 전선을 담보하는 행위라 여기시는 굳은 믿음. 그

러나 그러한 선생님들의 대쪽같은 올곧음은 구체적 상황에선 어려움과 난처함을 몰고 오기 일쑤였다. 사실 실생활의 경제적 압박에서 오는 미미한 돈의 유혹(?)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는 선생님들이시지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보답으로 내놓는 이 돈도 못 받으시냐?'며 '그럼 이제부터는 폐끼치기 싫어서라도 아예 탕제원에 발 꿔겠다'는 손님들의 으름장은 선생님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특히 이런 상황을바로 면전에서 겪어야만 하시는 이두균 선생님의 처지란!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 선생님들께선 몇번의 회의를 하셨다.

매번 회의의 결과는 '원칙고수'.

이제 대부분의 손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신 다른 식의 보답을 해오곤 한다.

"며칠전엔 침을 맞고 아픈 곳이 다 나은 사람이 고맙다며 반찬을 해 왔더라고. 그게 바로 서로 삶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아니겠어?"라며 이두균 선생님은 넉넉한 웃음을 웃으신다. 그러나 민가협어머니들 중에는 발 꿔는다는 협박(?)을 실행하신 분들도 계시다. 올해만도 입이 돌아간 환자를 넷이나 고치신 이두균 선생님께선, 그런 얘기를 들려 주시며 "내, 다시 찾아오면 되게 아프게 침을 놓을꺼야."라고 엄포를 놓으시지만, 엄포속에선 그런 분들을 은근히 기다리시는 마음이 더 짙게 배어나온다.



▲민중탕제원 선생님들께서 환희 웃고 계신다. 왼쪽부터 권낙기, 이두균, 임방규선생님

탕제원엔 서늘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런닝바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 탕제를 맡고 계신 임방규선생님. 약재의 탕약은 꽤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열아홉에 빨치산투쟁을 하셨던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지, 선생님은 무거운 짐통도 거뜬히 드신다.

한번은 선생님들의 어수룩한 장사(?)방법을 안타까워한 한 약재상이 "선생님, 비싼 개고기나 염소를 다리실 땐 다리 하나쯤 떼고 다리시고 해야 이문이 좀 남는거예요"라는 귀뜸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이 때 선생님께선 화를 벌컥 내시며, "예끼, 이 사람아, 그털러면 차라리 내 다리를 자르겠네"라고 잘라(!) 말씀하셨다고.

그런 임선생님께선 여러가지 약재가 뜨거운 열을 한데 뭉쳐 걸죽한 진국인 '보약'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며 보약같은 새조국을 간간이 그려 보시기도 한다.

홍보와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권낙기 선생님. 아직 영계(?)인 탓에 잔심부름이 많으시다는 권선생님의 소망은 너무나 소박하다.

“앞으로 출소할 나보다 훨씬 어린 진짜 영계들 있잖아. 예를 들면 갑석이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꼬셔서 내 딱갈이로 두고 나도 심부름 좀 실컷 시켜봤음 좋겠어.” 아이같은 농담을 쉽게도 하신다.

실제로 탕제원내에서 권선생님은 일인 다역을 하신다.

일을 하시다가도 바쁘게 뛰어와 전화받기, 임선생님의 탕제돕기, 탕제원 분위기 띄우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모셔오기(?). 그래도 권선생님의 얼굴은 언제나 밝으시다, 소년처럼.

다른 곳보다 훨씬싼 약값에 약재의 효능을 의심하거나 나쁜 약재를 쓴 것 아닌가하고 찔찔해하는 사람들을 볼때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패배해있는 불신풍조에 놀라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신다지만.

개원 3년을 맞아 선생님들께서는 침을 무료로 놓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다. 아무리 제각기의 노하우가 깊이 있게 축적되어 간다해도 전체를 흐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세 분 선생님들의 노하우는 서로 밀어주고 받쳐주는 과정에서 생겨진 것이니까, ‘민중’을 위한 ‘민중탕제원’ 안에서.

앞으로 선생님들의 계획은 아주 작고 수수하다. 그간 축적된 경험을 더욱 잘 살려나가 탕제원

의 기반을 좀더 탄탄히 하는 것과 더 많은 환자들을 접하여 그들의 건강을 찾아 주는 것. 그리고 축하의 마음은 가득해도 늘 빈손으로 찾아다니기 일쑤던 축하자리에 작은 정성이라고 보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다.

“아구, 약 팔 시간 다 됐네. 자, 일하러 갑시다”며 서둘러 일어서시는 선생님들의 등뒤로 탕제원의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걸 꼭 써줘. 김장할 때 고구마채를 썰어 넣으면 잘 안시고, 또 몇포기는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해 7,8월에 먹으면 별미지. 그리고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땐 땅콩이, 소고기 먹고 체했을 땐 벗짚 삶은 물이, 개고기땐 살구씨가 좋다”는 부탁을 잊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등뒤로 빨간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며칠 후면 세번째 생일을 맞는 ‘민중탕제원’.

청년들이 가끔씩 찾아와 청년들 먹성으로 냉장고를 텅텅 비우고 돌아가도 없는 살림에 마음은 그득하다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의 잔칫상을 차려 드리러 갑시다.

간 김에 진맥을 핑계삼아 손목도 한 번 잡혀보고.

주소·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07번지
전화번호·969-8726

섬진강 진메 마을 시인 김용택

이 현 근 회원(교사)

새벽 강가의 진메 마을은 짙은 강안개에 싸여있다. 하루 중 모든 사물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바람도 자고 강물도 가장 낮은 소리로 찾아든다. 이 고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잠을 깨는 것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마을을 나서고 강가와 들길을 밟을 때 사물들은 서서히 잠을 깨고 안개 속에서 금빛으로 내려오는 아침 햇살을 받는다. 시인은 새벽 뒷마루에 누워 사물들이 서서히 깨어서 두런거리는 소리를 엿듣는다. 나무 한그루, 풀 한 포기, 꽃 한송이, 바람 한 자락에도 이곳에서는 불러 줄 이름이 있다. 향기로, 소리로, 미미한 몸짓으로 혹은 눈물로 그들이 시인에게 온다. 시인은 나무 한그루 돌맹이 하나를 바라보고도 평생을 살수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시인은 이제 병이 들었다. 대도시의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병명을 알수 없는 이상한 병이다. 까만 염소 새끼같은 아홉놈의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두고 두달 동안 병가를 내었다. 병가가 끝나도 몸은 쉽게 낫지를 않는다. 걸어서 삼십여분 걸리는 학교까지의 강 길도 버거워서... 이제는 전주에서 차로 통학을 한다. 봄에 강가에 흐드러진 자운영, 토끼풀 꽃을 본 후로 여름의 엉겅퀴, 달개비, 가을의 연보라색 쑥부쟁이들을 볼수가 없었다. 이따금 혼자 사는 노모를 보러 진메로 내려오지만 가슴이 황폐해진 걸 느낀다. 가슴에 뚜렷이 새겨지던 그 온갖 사물들의 소리도 지금은 먼 발치서 망설인다. 지난 여름에 전주에 가 있는 사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마을 앞 강가에 놓인 징검다리가 없어지고 시멘트 보를 쌓은 것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 사라진지 오래고 하나 남은 젊은 농군마저 서울로 올라 간 후로는 노인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달 밝은 밤 강가를 거닐며 바라보면 하얗게 한이 서린듯한 천담 마을 쪽도 먼 과거인듯 추억 속에 아른거리고 버려진 천담 분교 운동장에도 서러움 처럼 들풀이 번져가고 있을 것이다.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다고 말했던 그 밤들이 꿈 속이었던 것 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시월의 태양아래 영그는 저 들판과 산의 과실들은 주인이 사라진 것을 모르는 듯 무거워진 제 무게로 가지 위에 늘어지고 곡식들로 남녘의 빛을 한껏 즐기고 있다. 굵이치도는 강줄기 마다에도 푸른 산들의 자태를 홀뜨린다. 정강이까지 옷을 걷고 건널수 있을 만큼 얇은 곳이 있으면서도 하늘 높이 만큼이나 투명하고 깊은 느낌을 주는 강, 그 언저리로 펼쳐진 논들의 강렬한 노란 색, 그리고 고요함... 적막강산. 뜻 모르는 나그네는 무릉도원에 온듯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즐겁게 쉬며 기분 전환도 할수 있고 부담없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곳만 찾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별천지도 없으니까. 마음 속에 자루가 든것처럼 뭇가 가득 채워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심도 채워 줄수 있으리라. 그

러나 밤이면 더 사무치는 저 사물들의 진정한 몸짓은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주인이 다가오는 발자욱 소리에 기쁨으로 떠는 밭 작물들은 농투사니의 투박한 손길을 그리워하다 영영 사라지고 억센 잡초들이 자리를 잡아간다. 저 멀리 산자락 끝에 닿아 있는 논들은 벼가 아니라 돌피밭이다. 몸의 병은 이들 배반 당한 사물들이 버림받은 데 대한 보복인지도 모른다. 사실 마을 앞 강가에서도 사라져 가는 고기들이 많다. 물의 빛깔도 예전같지 않고 도회지에서 흘러 보내는 것들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살려 도시로 떠나고 무언가 잃은 것을 찾듯이 이곳으로 와보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볼 뿐이다. 이제는 사물들이 그들이 당한 양갓음을 할 차례인 것이다. 강가에 바람이 인다. 시인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울이 와서 깊고 추운 밤에 골짜기 마다 동화처럼 눈이 쌓이고 다시 봄이 오면 죽어간 파르티잔의 꽃넋들이 온 산하에 붉게 널리겠지만 이 끝을 알수 없는 바람 속에서 시인은 동요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설이 되어서 육자배기의 긴 가락 끝에나 남아있게 되는 건 아닐런지.



뿌리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편집부

“그렇게 좀 일찍부터 서두르셨잖나? 매일 오던 가족들이 이틀이나 안 왔으니 안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3시간 남짓한 면회길을 하루가 멀다하고 오갔는데, 어제, 오늘 얼굴을 보지 못한것에 못내 마음이 쓰이는 어머니와 누님이다. 2주일도 아니고 고작 이틀인데 뭐그리 걱정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와 누님의 얼굴은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가뜰이나 심기가 편치 못할 아들과 동생에게 사소한 마음 쓸 일도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12년간의 수배생활끝에 지난 9월 3일 구속, 수감된 조혁씨(31세 반미청년회 의장)는 학생운동 시절 화려했던 활동과 함께 그 오랜 수배생활로도 유명했던 사람이다. 여느때와는 달리 조금은 한산한 오후에 사무실에서 조혁씨의 어머니(박성래, 57세)와 누님(조훈희, 38세)을 만났다.

“남양주 경찰서에서 연행하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데려갔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안기부로 직행해서 밤새 싸움을 했지 뭐야. 나중에서야 홍제동으로 달려갔는데 처만 면회가 된다고 면회 신청을 거절하네. 그래, 2시간동안 민가협어머니들과 함께 차앞에서 뒹구르고 소리를 치며 싸웠지. 연행된지 48시간만에 면회가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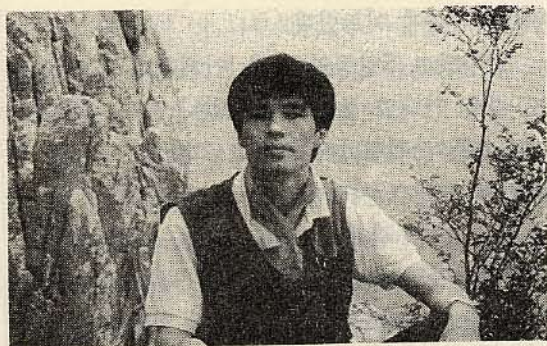
박흥 총장이 학생운동내 주사파 발언으로 공안바람이 한창이던 8월경에 안기부(?)는 전대협, 한총련의 배후세력중의 한사람으로 조혁씨를 지목했다. 그리고 그 얼마후, 우연한 제보로 인해

연행되기까지 이르렀다.

“연행되고 5일동안 잠을 안재웠대요. 안그래도 잠을 안자고 무슨일이 있었나 보다 걱정했는데, 고문의 위협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회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싹 벗겼지. 그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하대. 그래, 내가 말했어. ‘나는 내일도 오고 모레도 와서 벗겨보고 내자식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흔적이 있으면 내 죽어도 예서 죽을테다’고 엄포를 놓았지”

수사관은 처음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혁씨가 ‘나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니, 다시 ‘반미청년회 조직원 한사람만 불러주면 구속도 안시키고 출세시켜 주겠다’라고 계속 회유를 거듭했다. 또 ‘너는 ○○사상, ○○파’라고 신문하는 경찰들 앞에서 ‘나는 다른 어떤 사상도 아닌 조혁사상이다. 대통령과 대독을 시키지 않으면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조사서에 그를 과대망상증환자라고 올려 놓았다. “몇년전 이라면 대통령도 만났겠지. 한때는 동지라며 같이 싸웠던 사람이니 왜 못만나겠어? 우리 혁이는 면회갈때 마다 더 자신있어 보이더라구. 그 사람들이야 안달이 나서 가족들보고 혁이를 설득하라고 난리였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서 꾀꾀하라고 격려해주니 나중엔 아예 두손 들었다더군.”

다른 사건과의 연관을 맺는것도 실패하고 아



▲10년의 오랜 수배끝에 구속, 수감된 전 반미청년회 의장 조희씨.

무런 성과도 없자 '우리들 추석연후에라도 집에 갈 수 있게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해달라'고 애원까지 하더라. 1차조사 후엔 4명씩 3조로 구성된 담당반이 지쳐서 병원까지 갔다고 한다.

"그 사람들 하나가 나보고 혁이피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래, 내가 우리 할아버지 대부터 독립운동한 애국자 집안이라고 피하나는 깨끗하다고 큰 소리쳤지. 처음에 혁이가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을때도 개인병원 의사는 안된다는 거야. 꼭 종합병원의사라야 한대나. 결국 싸워서 경찰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게 했어요."

후덕하고 인자하기만한 인상의 어머니 어디에서 그런 투지가 나오는건지. 조희씨가 연행된 직후부터 어머니의 대응은 거침없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동생을 생각하는 누님의 정성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도 그만

두고 왕복 6시간 길의 면회일을 매일의 낙으로 삼았으니 말이다.

"고교때 부터는 동생이라는 생각이 안들었어요. 너무도 바른 심성과 정확한 생활관때문에 항상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었죠. 그때문에 어렸을 땐 기도 많이 죽었지만 이젠 모두 추억이에요.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헤쳐나가는 동생이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인정이 참 많았지.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정이 짝짝 달라붙게 해.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누가 남 흉이라도 불라치면 질색을 했지. 대학을 다닐때까지 속한번 썩혀 본 기억없는 아들이기에 어머니와 누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아들과 동생을 믿었고, 한꺼번에 7,8군데 기관에서 찾아와 조사를 하고 감시를 했어도 그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85년 애학회 사건으로, 88년 전사추위 그리고 88년엔 반미청년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배는 계속 이어졌고, 경찰은 아예 조희씨의 집에도 수사본부를 차릴 정도였으나, 내아들이 아니라고 한말, 그사람들이 아무리 뭐라해도 귀한번 열지 않으셨다 한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애뜻한 아들이지만 오랜 수배생활동안 가뭄에 콩나듯 걸려오는 전화에도 보고싶다는 말 한번 하지 않으셨다 한다.

"절대 세마디 이상을 넘기지 않았어. 건강하니, 돈필요하니, 전화 끊어라 딱 그말 뿐이었지. 공중전화에서 누가 채 걸까봐 안부 확인만 하면

德不孤必有隣
덕이 홀로 살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끊고는 했어. 몇년만에 시내에서 딱 한번 만났는데 어찌나 조바심이 나는지 얼굴만 확인하고는 등 떠밀어 되돌려 보냈지. 누가 꼭 미행이라도 하다 잡아갈까봐 아들이 택시타고 가는 쪽으로 고개도 못돌렸어.”

간간히 걸려오는 전화 끝에는 ‘엄마, 민가협에 꼭 찾아 가세요.’라는 말이 이어졌고 ‘내가 뭘 하랴’ 하는 망설임도 많았지만 88년에 결국 민가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후 집회에 참석도 하고 높다높게만 여긴 법원에 항의 방문도 하며 그리고 재소자들의 권익을 위한 교도소 투쟁등이 아예 어머니님 일이 되었다.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보았고, 지금도 속에서 열이나 문을 못닫고 주무시는 어머니지만, 집회에서 인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자식이거나 여기며 새세상을 사는 보람을 느끼신단다.

동생의 곁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님도 마찬가지이다.

운동에 찬성은 하지만 소신있게 뛰어들어 하지 못해 동생에게 항상 빚진 기분이라는 누님은 동생이 걱정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잘 모시는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 믿는다. 결혼 상대자로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을 골라 결혼했다며 웃는 누님의 눈은 마냥 진실하기만 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혁씨는 연행되기전에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한 2~30권 분량의 책을 쓰고자 준비중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수배생활로 하고



▶ “내아들이 아니라고 한 말, 귀하년 열지 않았습니다.” 조혁씨의 어머니 박성래 님.

싶은 일도 마음껏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여느때보다 안정된 모습이라 한다. “아버님도 예전엔 항상 불안해 하며 의기소침해 하시더니, 이번일에 의연하게 잘 대응하는 아들을 보며 많이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엔 신문이나 TV에 신원미상의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뜯눈으로 밤을 새우고 악몽으로 3시간 이상을 자질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 아들이 어디 어떻게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민가협 엄마들도 내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놀리네. 다만, 며느리가 제일 측은해서 걱정이야. 혁이 책을 숨겨줬다고 은닉죄라나 뭐라나 지금 집에도 못들어가고 있어요. 개는 또 무슨 죄가 있어 그 고생을 하난 말이지.”

“이번 일로 또 다른 동생을 본것 같아요.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에 믿고는 있어도 그간 많이 변

화한 모습을 확인했지요. 무엇보다 친구 복이 많은 것 같아서 기뻐요. 친구와 같이 있었던게 죄가 된다면 구속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지요. 이제는 동생을 나만의 동생이라든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안해요. 그애가 공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모든 후원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더 부딪히다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알 수 있겠지요.” 다만 어머니와 누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조혁씨의 책을 맡아주던 며느리의 친구가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심한 충격에 마음이 몹시 상해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사람을 협박했길래 그럴까 경찰이 꽤섬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것이 급선무라 여기신다.

또한 경찰 조사 때 수사관과 서로 무조건 불

신을 하며 대했기에 더욱 힘들었던게 가슴아프다며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이 빨리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하신다. 아마 그건 우리모두의 마음일테고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무성한 잎과 우람한 풍채를 자랑하는 나무를 지탱시키는것은 땅속에 숨겨진 질기고도 속깊은 뿌리가 있음이라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 빛나진 않아도 제일 처음에 있고 제일 나중까지 있을 그 뿌리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린 무성한 잎으로 듬직한 기둥으로 서로를 이뤄줄 수 있는것이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어머니와 누님을 보며 그들이 이뤄낼 커다란 나무의 열매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거짓과 진실,
상식과 편견의 커다란 싸움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어머니 권태평씨가 쓴 '아들 결백' 수기.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지켜보면서 3년 2개월동안 옥바라지를 해왔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눈물과 행적의 기록. 이 기록은 공권력의 자기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라는 권고이며 채찍이다.” - 함세웅 신부

▶ 값 5,000원 한겨레신문사 출판부

德不孤必有隣

- 바르게 살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

이 중 (83 낙성대 만남의집)

지난 8월 17일 새벽 2시에 낙성대 만남의 집 2층에 누전으로 추측되는(경찰주장) 불이 났다. 네 늙은이가 손수 취사를 하며 그러나 희망을 복돋우며 살아가는 집에 말이다. 인력과 재력이 전혀 없는 막막한 처지에서 당황망조,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불이야!” 소리만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새에 소방차와 이웃이 모여서 겨우 진화하였다. 크지않은 화상과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타버린 가재도구와 소지품보다 집을 마련하느라고 노력한 여러 분들을 볼 맛이 없었다.

德不孤必有隣. (린이란 막걸리잔이나 나누는 이웃이 아니다) 옛말이 생각난다. 德은 義로 통하고 義는 바르게 사는것을 의미한다. 바르게 살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 수호원회 권오현 회장을 비롯하여 후원회원들의 열성적인 복구작업과 송경용 신부님이 지도하는 기술자들의 노력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반듯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호열 치옥을 연상케하는 불벌더위에 채와 먼지와 땀이 범벅이 되어 기진맥진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느끼었다.

소수영씨와 조명희씨 등 많은 여성 후원회원들은 가사와 비용을 불고하고 찬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20여일 넘도록 일꾼들 식사대접을 한것은 집안일인들 그렇게 정성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녀합심의 정성과 힘은 20여일을 걸려서 화재전보다 깨끗한 처소를 완성하였다. 기술자 노임과 재료대(실은 재료대와 노임도 선의의 출연에 의한 것이다) 여러가지 잡역들의 후원회원과 학생들은 순수한 공동체 의식에 의하여 무임노동이었다. 질통을 지고 자재는 운반하고 그을린 벽은 닦아내고...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일각의 화재사건이지만 나는 여기서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도 하자가 있다. 거기에는 돈을 중심으로하는 이기심에 의한 공동체적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겉을 화려하게 꾸민 속이 허점을 말해준다. 건축계에서 뿐만아니라 불신을 낳는 사회일반현상이 아닐까?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문민정부에 있어서 끔찍스런 지존파의 원인을 해부해보자. 연속되는 살인의 근원은 무엇인가? 행정자의 탈을 쓰고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상하가 공모하여 줄줄이 착복하는 파렴치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그 수단과 방법과 다르지만 그 근본을 캐보면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는 이러저러한 동류의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그 뿌리는 남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빼돌려진 사회악에 근거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덕적인 교육의 부재를 말하기도 하고 사법적인 엄벌주의를 말하기도

양심과 불행

- 1992 10월 10 일 12월 10일 12월 10일 -

(1992 10월 10일 12월 10일 12월 10일)

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풍자가 감옥의 벽에 새겨지는 한 도덕적인 교육은 구두선에 불과하고 엄벌주의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되려 반발심을 키울 것이다. 아무리 이기주의가 팽배한 타락한 사회일지라도 인간이 사는 사회는 그에 대립하여 싸우는 양심의 물줄기가 있는 법이다. 양심이 없으면 인간의 형체를 갖춘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황금의 돈더미에 앉아 불가능이 없는 권세를 누리면서도 오직 사회적인 양심사업에는 담을 쌓고 지내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물줄기가 맥맥히 흐르고 있다. 비록 약하고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자라날 인간 소망의 공동체며 경종인 것이다.

이 양심의 맑은 한가닥을 이번 낙성대 화재에서 볼 수 있었다. 노임을 주어도 기피할 악역에 기꺼이 동참하여 전보다 더 깨끗한 집을 마련해 놓았다.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들의 집을 마련한 것 이상으로 그 의의가 믿음직하고 기쁜 것이다. 이 공동체 의식이 다져지고 심화되어 남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깨달아 이런 마음가짐이 일반화될 때 연속되는 이 사회의 비리와 악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징역쟁이들이 없는 바뀌어진 미래를 생각합니다

오 형 식 (대구교도소 수감중)

그 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대구의 여름도 세월 앞에는 어쩔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살고있는 이 화원 땅만 남겨놓고 땡땡 돌아가면서 간헐적으로 소나기도 뿌리고 이슬비도 나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던 이상기후가 어저께는 이곳에도 장대같은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덕분에 어제 저녁에는 날씨가 서늘하여 모포라도 한장 걸들여야 하였고 자고 일어나면 이감방 저감방에서는 기침소리가 들려옵니다. 며칠있으면 추위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압박을 가해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징역쟁이들은 마음썸썸치는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일 전 출판물을 통하여 이중환 선생님이랑 사시는 집이 화재가 나서 거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었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 징역쟁이들도 모두 그런 재해에 대하여 우려하고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에게 또 송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반기가 민망스럽더군요. 복구사업에 그돈을 보태 쓰는 것이 저희들에게 송금하는 것 보다 마음 편하다는 느낌이지요.

공안정국과 관련하여 재판도 증가일로이고 징역사는 사람도 증가일로이니 뒤을 보아 주는 것도 한계에 달하는 기본입니다. 더욱이 그전에는 기념일을 계기로 몇분씩 나가기도 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면에서도 완전히 그런 제도는 폐지되어 주어진 형기 전에 나간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뿐만아니라 일반수도 특사라는 것이 없으니 기념일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졌지요. 저 같은 사람은 요행수를 기다려본 일이 없으니 서운할것도 없지만 종래 군사정권때에도 출소를 기대해 볼만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실망을 하고 있지요. 숨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이러한 역사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합니다. 더는 징역쟁이들 때문에 신경쓰는 일도 없는 바뀌어진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선생님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사업에 성과를 바랍니다.

오형식 선생님은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원산농업대학 상급교원(조교수)을 지내셨며 1969년 구속되어 현재 대구교도소(3100번)에 수감중이십니다.

9. 1

- 이구영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집회가 50회를 맞이하는 날로 노래마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9. 2

- 낙성대 만남의 집 도배(아래층)를 민가협 최만식 어머니가 도맡아 주셨습니다.

- 경찰, 조계사에 진입하여 농성중이던 전기협(위원장 서선원)간부들을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불교인권위가 강력 항의하였습니다.

- 공안바람은 청소년에게까지 불어닥쳐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 소속 회원 13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9. 3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94 수련회가 1박2일로 대성리 남사당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 고팡인 선생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9. 4

- 수련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석 모란공원에 들러 참배를 했습니다.

9. 5

- 부천 한누리노동청년회 회원 4명이 경찰에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9. 6

- 고문수사로 간첩이 된 함주명(현 전주교도소 수감중)씨 등 7명이 낸 고문경찰관 고소가 공소시효 완성(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함주명씨 등 7명은 이에 불복해 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9. 7

- 구자호 선생님께서 특별회비로 500,000원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8

- 성남지역 노동자회 회원 6명이 연행되어 이 가운데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9. 9

-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하루주점이 있었습니다.

- 민중당제원 이세균 선생님께서 새로 이사한 봉천동 만남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기셔서 김석형, 김중중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9. 12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 간

9. 13

부 14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전원구속되었습니다.

- 새길교회에서 성금으로 1,000,000원을 더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김현준 사무처장, 이수일 정책위원장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성금까지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20,000원)
- 양심수 후원회 9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가협 수련회 평가와 “UN 인권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참석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 15

- “학문목적 이적도서 소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다” 는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 외국어대 장기수후원회 준비모임 5명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2시 까지 탑골공원앞에서 열렸습니다. 중앙대 노래패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9. 16

- 낙성대 만남의 집 집들이 초청장 발송을 하였습니다.
- 민중탕제원에 추석인사를 다녀왔습니다.

9. 17

- 후원회소식 35호 발송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선영, 허유정, 홍전영, 이희두 회원이 수고하셨습니다.
- 봉천동, 낙성대 만남의 집에 추석인사를 다녀왔습니다.

9. 20

-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한가위날입니다.
- 움시롱감시롱 회원들이 낙성대 선생님들과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9. 21

- 서울시립 양로원에 계시는 임병호 선생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마치고 얼마전에 퇴원하셨습니다.

9. 22

- 유가협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박정기 님(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 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9. 24

- 낙성대 만남의 집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140여명의 회원과 손님들이 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25

-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이신 김영옥 선생님 사모님께서 급환으로

9. 27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 양심수 110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하였습니다.
- 범민련 황석영씨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고 판시하여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9. 28

-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대협 제5기 의장 김종식씨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김진주 박영만 송원주님께 영치물을 넣어드렸습니다.
-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중인 안재구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복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 경찰청 보안국 홍제동 분실, 서울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의장 연성수씨를 비롯하여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9. 29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9. 30

- 미국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1,000달러 (8, 9월분)를 보내오셨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서경원 자녀님께 자녀돕기성금 8,9월분을 드렸습니다.

9월에 구속된 양심수 - 총 59명

9월에도 여전히 많은 양심수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9월에는 공개대중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많았고 농성중이던 전기협,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량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병석 이영숙 송경숙 장석철(이상 성남 노동자회)
김성룡 배영미 김현정 신지애(이상 부천 한누리노동청년) 연성수 임창기 이철우 김동미 이승구 김미정 박병철(이상 노민문연) 문영기 김용우 고영국(샘) 김창호(경북대 총학 사무국장) 박영돈(경북대 조통위장) 강선원(목포대 총학생회장) 서광일(부경총련 의장) 정동익(새날열기 편집장) 최진(외국어대 용인 총학생회장) 심부석(울산대 - 김주석 조문대자보) 고광진(전남대 사무국장) 김성옥(전남대 조통위장) 정광원 김형록 신유철(조선대) 김태성(하이텔 통신 - 조문관련) 조혁(반미청년회) 박성우(성균관대 조통위장) 김영민(경남전문대 - 국제사회주의자) 신정길(범민련 사무처장)

파업관련 등

김연환 정재웅 오선근 이상대 양윤모 김명한 서영석 김대훈 조태형 박정규 장윤석 김용진 최종진 허석 김명희 이경수(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서선원 정영서 연재환 김운철 이충갑 송호준(이상 전기협) 양연수(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새의원

김정렬(제주도 남도) 강한성(춘천시 효자동) 정태수(과천시 별양동) 안은주(마포구 도화동) 천미현(동작구 동작동) 정지연(송파구 가락2동) 이혜원(서초구 방배1동) 김효정(서대문구 남가좌동) 이나리(부천시 원종동)

10월산행

은 산천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10월입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10월, 만장봉과 자운봉의 위용이 더 빛나보이는 도봉산으로 떠나봅시다. 모두 함께 모여 산천이 영글어가듯 94년 우리네 삶의 열매를 하나하나 확인해봅시다.

언 제 : 1994. 10. 16. 오전 10시

모이는 곳 : 도봉산 안내표지판

(19번 도봉산 종점, 국철 도봉산역)

준비할 것 : 회비 3,000원, 맛있는 점심

축하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 간사였던 노태훈씨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걸음에 길이 축복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 : 1994. 10. 22 오후 2시

곳 : YWCA

낙성대 '만남의 집'이 새로 단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갈라진 땅을 하나되게 하려다 고난당했던 수 많은 분들의 아픔을 나누려는 뜻으로, 그리고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에 돌아가시기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리려고 마련되었던 '만남의 집'이 말끔하게 단장되어 지난 9월 24일 '집들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작은 잔치에는 이집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오랜 옥고를 함께하셨던 여러분들, 박용길 장로님을 비롯하신 민가협어머님들, 그리고 후원회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손님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을 대신하여 천주교 서울 대교구청 사회복지회 한영실님, 민족정기 구현회, 권중희, 민족정기 수호협의회 이수갑님과 여러분들, 유가협 박정기 회장님과 여러분,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님과 여러분, 민족문학 작가회의 이기형님과 여러분, 범민련 김병권님과 여러분,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님과 여러분, 4월혁명 연구소 황건님과 여러분, 천정연 장기수 가족후원회 최현숙님과 여러분, 해마루 법률사무소 여러분, 봉천동 평화의집 정봉수님과 여러분, 나라사랑 청년회 김종성님과 여러분, 등 모두 140여 명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 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철, 박석무, 이길재, 박계동의 원들과 전 4월 혁명연구소장 윤성식님, 엠네스티 사무국장 오완호님이 축전을 보내 주셨습니다.

'만남의 집'에서 웃어른이신 이종선생님과 후원회 대표가 시루떡을 자르는 것으로 이 집에 한결같은 평화와 안녕을 빌었으며 이종선생님께서 손님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후원회에서 집 마련과 수리경과를 말씀드린 다음 조출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황건, 이부영, 이수갑, 조영건, 이구영, 김병권 유가협, 장가협, 천주교 서울대 교구청 사회복지회, 전해철, 해마루 법률사무소 송경용, 김광열, 주명순, 구학협, 신광현님들, 여러분의 축하성금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의 여러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애써주셨고, 이날 잔치음식, 손님 맞기에 바쁘셨던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석연휴로 소식지가 늦게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회원여러분께 전화로 알렸으나 마침 안계셨거나 전화요금으로 미쳐 알지 못하셨던 회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5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4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6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에게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